

은행권 채용에 필기시험 부활

은행연합회, 채용절차 모범기준 마련...다음달 확정 필기, 경제·금융·일반상식 분야 객관식 평가 전담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외부전문가들 참여

은행권 채용에 필기시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치뤄지게 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주 이같은 방안들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아 최종 모범기준을 확정하게 된다.

모범기준안에는 먼저 필기시험을 도입하도록 한 것은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필기시험 형태로는 경제와 시

사상식 분야의 객관식 평가가 예상된다.

이미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의 경우를 보면 주로 경제·금융 분야와 일반상식, 한국사 등에서 객관식과 단답형 문제를 냈다. 국제경제나 외환파생상품의 순익구조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와 별도로 인적성검사도 있다.

이번 모범기준은 그간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드러났던 은행권 채용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면접에는 블라인드 방식이

도입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같은 목적으로 서류전형 평가 역시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그간 특히 문제가 됐던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된다. 채용 결과가 난 뒤에 부정합격자가 적발돼 채용이 취소될 경우를 고려해 예비합격자 풀도 운영하는 조치도 모범기준에 담겼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기준 최종안을 다음달 25일 이사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모범기준이 확정되면 은행들은 이를 채용 절차에 반영하게 된다. 모범기준이 꼭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채용비리가 연달아 도마위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모범안의 상당 부분이 각 은행 내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의 모범기준이 마련되면

서 은행권의 신규 채용도 본격적으로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신한은행을 끝으로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가 일단락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300여명 규모로 상반기 채용 공고를 낸다. 하반기에도 추가 공채를 진행할 계획이라 지난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200명을 뽑은 우리은행은 하반기에는 550명을 더 뽑는다.

KB국민은행은 하반기에 지난해 채용한 500여명 규모보다 더 많이 뽑을 계획이다. KEB하나은행도 하반기에 25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상반기에 350명을 채용해 작년 수준을 채웠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동서식품은 15일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에 고객 체험 공간으로 팝업카페인 '모카우체국'을 열고 오는 7월 6일까지 운영한다.

'커피 한잔이 주는 여유'

동서식품, 한옥마을에 고객체험 팝업카페 열어

동서식품은 오는 15일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에 고객 체험 공간으로 팝업카페인 '모카우체국'을 열고 오는 7월6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카우체국은 2015년 제주도 남원읍의 '모카다방'을 시작으로 2016년 서울 성수동의 '모카책방',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의 '모카사진관'에 이어 연 동서식품의 네 번째 고객 체험 공간이다. 매년 '커피 한잔이 주는 여유와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모카우체국은 옥상을 포함한 총 4개층 규모로 구성됐다. 전 층에서 맥심 모카골드가 무료로 제공되며

자인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건물 곳곳에는 모카우체국을 상징하는 노란색 우체통과 우편창구, 우편함, 필경대 등 이날 로그식 소품들을 배치했다.

모카우체국에서 작성한 편지는 실제로 발송할 수 있고 '우체국'을 테마로 한 여러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진행된다. 2층 영상편지 부스에서는 자신이 말한 대로 메시지가 자동으로 적히는 영상편지를 찍어 보낼 수 있고, 3층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찍어 '나만의 모카일'을 만들 수 있다. 이벤트 정보는 모카골드 페이스북(www.facebook.com/maximoch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동취재반



프랑스 르노의 소형차 '클리오' 국내 출시

프랑스 르노의 소형차 '클리오'가 14일 국내 출시됐다. 클리오는 한국에서 르노삼성자동차의 전폭 지원으로 판매 전시장을 통해 판매된다. 클리오의 한국 출시 가격은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되는 인텐스 트림의 동일 선택사항과 비교할 때 약 1000만원 가량 낮게 책정됐다.

프랑스 르노의 소형차 '클리오'가 14일 국내 출시됐다. 클리오는 한국에서 르노삼성자동차의 전폭 지원으로 판매 전시장을 통해 판매된다. 클리오의 한국 출시 가격은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되는 인텐스 트림의 동일 선택사항과 비교할 때 약 1000만원 가량 낮게 책정됐다.

하림, 전국채전 홍보준비 완료... 신선육 10개 품목 포장지에 엠블럼 삽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영역을 실천하고 있는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익산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올 10월에 익산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일원서 개최되는 이번 체전에 북한선수단 초청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뜨거

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주)하림이 제품홍보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주)하림의 익산전국(장애인)체전 홍보 지원 사업은 지난달 19일 익산 시청에서 (주)하림 이문용 대표이사 와 전 정현을 익산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지원 MOU 체결을 통해 추진된 것이다.

이에 (주)하림은 한 마리씩 개별

포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육계 신선 제품과 간편하게 맛있는 닭고기 요리를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닭볶음탕용 전용 제품 등 10개 품목 총 1,300만개 제품에 전국채전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홍보 지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닭고기 제품 포장지에 익산전국(장애인)체

전 엠블럼과 함께 서동 왕자와 선화 공주를 그려 제작된 마스크트를 삽입해 판매키로 했다.

현재 하림은 익산전국(장애인)체전 엠블럼과 마스크트가 삽입된 새로운 제품 포장지 디자인을 마치고 포장지 인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익산전국(장애인)체전 엠블럼과 마스크트가 삽입된 제품 출시는 6월부터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체전이 열리는 10월까지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면접비 지급 의무화 '부정적'

기업이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인사담당자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327명을 대상으로 '면접비 의무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3.6%가 '부정적이다'라고 답했다.

면접비 의무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면접비 부담으로 더 많은 구직자를 평가할 수 없어서(35.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면접비를 받기 위해 입사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30.3%)', '면접비 지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0.7%)', '면접비는 구직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므로(13%)' 순이었다. 기타로는 '면접비가 의무화되면 재직자에게는 교통비나 식비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있었다. /기동취재반

지엠, 비정규직 기습 시위에 정상화 기자회견 취소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4일 한국지엠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배리 영글 GM 해외 사업부문 사장 등의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비정규직 노조 10여명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인천 한국지엠 부평본사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비정규직 해결없이 정상화는 기만이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리 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이전가격과 고비용 이자문제 등이 공개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상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지법은 모든 공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 사용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해고를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해 이뤄져야 한다"며 "공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기습시위를 한 후 배리 영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의 기자회견을 참관하겠다고 회견장에 머물고 있고, 이 때문에 기자회견이 20분 가까이 지연됐고, 끝내 취소됐다. /기동취재반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